

보도 일시	2023. 3. 7. (화) 11:00 (국무회의 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3. 3. 6. (월)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팀 장 강현정 (044-200-6340)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희종 (044-200-6342)

##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종합적 조사로 청년 삶 개선·발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 청년(만19~34세) 대상 최초의 국가 승인 통계 조사
  - 1.5만 가구 대상으로 8개 부문 200여개 문항 방문 면접조사
- 부모와 미혼청년이 함께 사는 비율 53.3%, 청년 1인 가구는 22.6%
-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부모소유 포함) 55.8%, 전세 21.5%, 월세 19%
- 주택가격은 자가 5.3억원, 전세보증금 2.1억원, 월세 38만원(보증금 29백만원)
- 취업자 비율 67.4%, 월임금 252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
- 은둔형 청년(임신·출산·장애 제외)은 2.4%, 가족돌봄 청년은 0.6%
- 삶의 만족도 6.7점으로 국민 전체(5.9점) 대비 긍정적
- 결혼계획 75.3%, 출산의향 63.3%이며 남녀간 인식에 차이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재)한국통계진흥원에서 2022년 수행한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70002호)를 잠정집계한 결과로, 자료의 확정치는 향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 예정임

※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2022년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조사임. 목표 표본은 만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전국 15,000가구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14,966가구, 14,966명의 청년응답이 활용됨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를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재)한국 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정부최초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로서 정부공식 청년통계로 자리잡게 된다.
- (주거) 주거는 청년의 주거실태 및 주거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 청년의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요인인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질문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57.5%(부모 비동거 42.5%)로 나타났다. 참고로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주인 부모와 미혼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근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가 22.6%, 청년부부 가구 7.2%, 청년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0% 순으로 나타났다.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부모소유 포함)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 21.5%, 월세 19% 순이다.
  - 자가가구(부모소유 포함)의 평균 주택가격은 5.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이 7.3억원, 비수도권이 3.2억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세보증금 평균은 2.1억원이며, 월세 평균은 38만원(보증금 29백만원) 수준이다.
  -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으로 구입자금 대출 41.0%, 전세자금 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 지원 17.3%, 공공임대 공급 11.8% 순으로 나타났다.
- (취업·노동) 취업과 노동은 취업여부, 계약기간,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의 관점에서 청년의 노동여건을 살펴보았다.

- 취업자의 비율은 67.4%이고, 세금 공제 전 월임금은 25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이며, 1년 미만 근속기간의 비율은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시 고려하는 사항(1순위)으로는 임금 48.5%, 고용안정성 12.8%,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8.4%, 근로시간 7.2%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은 33.9%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불안 37.6%, 업무과중 21.1%, 일에 대한 회의감 14.0%, 일과 삶의 불균형 12.4%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청년)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임신·출산·장애 제외)로 나타났으며, 은둔 이유는 취업 어려움 35.0%, 대인관계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 \* 고립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는 외출 빈도를 묻는 것인데, '보통은 집에 있다'고 답한 경우를 편의상 '은둔' 집단으로 부름
- 취약가구원 돌봄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0.6%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회인식) 청년이 갖는 현재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를 살펴보았다.
-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0~10점)로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는 5.2점으로 나타났다.
  - \*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 5.9점('19~'21 평균,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2)
  - 본인의 소득계층 인식에 대해서는 중간층 56.5%, 중하층 26.5%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상층 0.7%, 중상층 11.6%, 중간층 56.5%, 중하층 26.5%, 하층 4.7%
  - 정치에 대해서는 37.5%가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다.

- (미래설계) 청년이 바라는 미래상과 현재의 여건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94.8%는 어느 정도 이상 실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도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청년의 향후 결혼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남 79.8%, 여 69.7%)하고,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남 70.5%, 여 55.3%)하여 남녀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기혼 포함,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 여부로 응답
- (경제) 청년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인 생활비, 소득, 재산, 부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묻되, 소득과 부채 등은 가구와 개인 단위로 조사하여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이고, 지출항목으로는 식료품비(96만원), 연금·보험료(32만원), 교통비(27만원), 교육비(2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고, 지출항목은 식료품비(48만원), 주거비(22만원), 연금·보험료(13만원), 교통비(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이 속한 가구 기준의 연평균 소득은 6,443만원 규모이고, 평균 부채규모는 5,08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은 2,162만원이고, 부채는 1,17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청년 삶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실태조사는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 마다 정기적·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조사결과로서, 청년통계의 초석을 놓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면서,
  -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고 덧붙였다.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데이터는 통계청의 품질점검을 거친 뒤, 각각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https://www.prism.go.kr/homepage/>)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팀 장 강현정 (044-200-6340)
		담당자	사무관 곽희종 (044-200-63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책임	부연구위원 정세정 (044-287-8130)
		청년정책 연구센터장	연구위원 김문길 (044-287-8354)
		담당자	전문연구원 류진아 (044-287-8162)

**1. 청년가구 일반현황**

□ (가구유형) 청년가구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43%, 부모 등에 속해 청년이 가구원으로 있는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57%

구분	합계	청년 가구주 가구						비청년 가구주 가구			
		소계	청년 1인	청년 부부	청년 +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소계	부모(가구주) + 미혼 청년	부모(가구주) + 기혼 청년	기타
비율(%)	100.0	43.0	22.6	7.2	6.0	3.6	3.6	57.0	53.3	0.4	3.3

□ (교육수준) 대졸이 61.4%로 가장 많고, 대학재학(24.0%), 고졸(14.6%) 順

구분(%)	합계	고졸이하	대학재학·휴학	대졸(수료 포함, 대학원생 이상)	
전체	100.0	14.6	24.0	61.4	
지역별	수도권	100.0	14.4	22.9	62.8
	비수도권	100.0	14.9	25.2	59.9

□ (취약가구) 한부모 가구(1.4%), 자립준비청년 가구는 전체의 1.7%

구분	합계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구 등	해당 없음
비율(%)	100.0	1.4	0.3	98.3

○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의 0.9% 수준

구분	합계	현재 수급	과거 수급경험(현재 X)	해당 없음
비율(%)	100.0	0.9	1.9	97.2

□ (혼인상태) 미혼 81.8%,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8.2%

구분(%)	합계	미혼	배우자 有	이혼·별거·사별	
전체	100.0	81.8	17.5	0.7	
지역별	수도권	100.0	84.1	15.2	0.7
	비수도권	100.0	79.2	20.1	0.7
성별	남자	100.0	85.7	13.8	0.5
	여자	100.0	77.4	21.7	1.0

## 2. 주거

□ (부모동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은 57.5%(남>여,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합계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전체		100.0	57.5	42.5
지역별	수도권	100.0	59.7	40.3
	비수도권	100.0	55.0	45.0
성별	남자	100.0	59.7	40.3
	여자	100.0	54.9	45.1

○ (독립계획) 부모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은 67.7%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활비 절약이 56.6%로 가장 높음

구분	합계	독립계획이 없는 이유			
		생활비 절약	통근·통학 용이	특별한 이유없음	기타
비율(%)	100.0	56.6	21.0	20.0	2.4

○ (적정 독립시기) 자산형성 이후 27.8%, 취업 후 27.2%, 결혼 후 23.1%

구분	합계	자산형성 후	취업 후	결혼 후	별도계기 없이 원할때	19세 이후	기타
비율(%)	100.0	27.8	27.2	23.1	16.7	3.5	1.7

□ (주거선택이유) 현재 거주 주택을 선택한 1순위 이유로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여서 42.3%, 주거비가 저렴해서 25.9%, 지인이 인접해서 8.3% 順

구분	합계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주거비(월세·보증금) 저렴	친구가족 등 지인 인접거주	내부환경이 좋아서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	기타
비율(%)	100.0	42.3	25.9	8.3	7.7	4.2	11.6

\* 2순위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여서 22.6%, 주거비가 저렴해서 16.1%,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16.1% 順

○ (지속거주의향) 현 거주 지역 지속 거주의향은 73.1%가 있다고 응답

구분(%)		합계	계속 살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희망
전체		100.0	73.1	26.9
지역별	수도권	100.0	75.1	24.9
	비수도권	100.0	70.8	29.2

□ (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55.8%, 전세 21.5%, 월세 19.0% 順

구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전체	전국	100.0	55.8	21.5	19.0	3.8
	수도권	100.0	52.7	25.7	18.5	3.0
	비수도권	100.0	59.3	16.6	19.5	4.6
1인가구	전국	100.0	11.5	25.8	52.7	10.0
	수도권	100.0	11.0	32.7	48.6	7.7
	비수도권	100.0	12.1	18.3	57.2	12.4

\* 부모가 소유한 경우 자가로 응답

□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평균은 5.3억원(중위값 4억원) 수준, 수도권(7.3억)이 비수도권(3.2억)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남

○ 전세보증금 평균은 2.1억원이며, 수도권 2.5억원, 비수도권 1.4억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백만원, 월세 평균은 38만원

구분(만원)		자가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보증부 월세 보증금		보증부 월세 월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전국	52,966	40,000	21,073	17,000	2,945	1,000	38	35
	수도권	73,477	60,000	24,814	20,000	4,026	2,000	45	40
	비수도권	32,376	28,000	14,541	12,000	1,788	500	31	30
1인가구	전국	31,847	25,000	12,512	10,000	1,568	500	37	35
	수도권	40,005	34,000	14,276	13,000	2,155	1,000	43	40
	비수도권	23,762	20,000	9,057	7,000	1,022	500	31	30

□ (주택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조달(1순위)은 부모님 또는 친지가 63.7%, 본인 21.5%, 민간금융기관 6.5%, 정부·지자체 5.3% 順

구분(%)		합계	부모 또는 친지	본인자금	민간금융	정부지자체	기타
전체	전국	100.0	63.7	21.5	6.5	5.3	3.0
	수도권	100.0	64.3	19.8	6.9	6.0	2.9
	비수도권	100.0	63.0	23.4	6.0	4.5	3.0
1인가구	전국	100.0	40.5	43.3	4.8	6.4	5.1
	수도권	100.0	39.1	41.1	6.6	8.4	4.9
	비수도권	100.0	42.0	45.7	2.8	4.2	5.3

□ (주택유형) 현재 거주 중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2.8%로 가장 많고, 다가구·다세대 22.5%, 오피스텔 6.6%, 단독주택 5.8% 順

구분(%)		합계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기타
전체	전국	100.0	62.8	22.5	6.6	5.8	2.3
	수도권	100.0	59.9	25.8	8.7	3.9	1.7
	비수도권	100.0	66.0	18.8	4.3	7.8	3.1
1인가구	전국	100.0	22.0	44.2	24.1	4.7	5.0
	수도권	100.0	19.4	39.8	32.4	4.3	4.0
	비수도권	100.0	24.7	49.1	15.1	5.1	6.0

○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에서 반지하, 지하, 옥탑 비율은 0.9%

구분(%)	합계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전체	100.0	0.7	0.0	0.1	99.1
1인가구	100.0	1.3	0.2	0.5	98.1

□ (주거정책)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구입자금대출 41.0%, 전세자금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지원 17.3%, 공공임대 11.8% 順

구분(%)		합계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주거비지원 (월세 등)	공공임대 입주	민간임대 관리감독 (전세사기 등)	기타
전체	전국	100.0	23.9	41.0	17.3	11.8	4.2	1.8
	수도권	100.0	25.4	40.6	16.5	12.4	3.6	1.5
	비수도권	100.0	22.2	41.4	18.2	11.1	4.9	2.2
1인가구	전국	100.0	27.4	31.8	23.6	12.6	2.8	1.8
	수도권	100.0	29.6	31.8	22.1	12.4	2.2	1.9
	비수도권	100.0	25.0	31.9	25.3	12.8	3.5	1.5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전체의 63.2%가 있는 것으로 응답

구분(%)		합계	유	무
전체	전국	100.0	63.2	36.8
	수도권	100.0	66.7	33.3
	비수도권	100.0	59.4	40.6
1인가구	전국	100.0	71.3	28.7
	수도권	100.0	74.7	25.3
	비수도권	100.0	67.5	32.5

□ (자가주택) 자가 소유 필요성은 91.3%가 그렇다고 응답, 그 이유로는 이사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기위해서가 31.3%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				기타
		원하는 기간 거주	자산증식·보전	내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분위기	임대료 압박 해소	
비율(%)	100.0	31.3	21.6	13.4	11.9	21.8

### 3. 건강

□ (흡연) 현재 청년들의 흡연율은 20.1%, 남자(33.3%)가 여자(5.6%)보다 높음

□ (음주) 최근 1년간 음주빈도는 월 2~4번 정도가 34.2%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전혀 안마심	월 1번 미만	월 1번	월 2~4번	1주 2~3번	1주 4번 이상
전체		100.0	19.7	15.9	14.4	34.2	13.2	2.6
성별	남자	100.0	15.8	14.0	14.0	37.1	16.0	3.0
	여자	100.0	24.0	18.1	14.7	31.0	10.0	2.1

□ (운동) 주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실천율은 32.6%이며,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53.3%,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26.4%로 나타남

구분	합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시간부족	필요성을 못느낌	비용부담	기타
비율(%)	100.0	53.3	26.4	6.3	14.0

□ (식사) 외식·매식빈도는 주 1~2회가 59.6%,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20.6%

구분(%)	합계	외식 또는 매식				
		일1회 이상	주5~6회	주3~4회	주1~2회	주1회 미만
전체	100.0	7.2	5.5	23.0	59.6	4.6
1인가구	100.0	10.6	8.5	28.1	49.0	3.8

구분(%)	합계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가족	가족 외 친구 등	혼자
전체	100.0	55.2	24.1	20.6
1인가구	100.0	5.2	42.7	52.1

□ (수면) 일일 수면시간은 주중 6.8시간, 주말(휴일) 8.1시간

□ (번아웃)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은 33.9%가 있다고 응답, 이유는 진로불안(37.6%), 업무과중(21.1%), 회의감(14.0%), 일과 삶 불균형(12.4%) 順

구분	합계	번아웃 이유				
		진로불안	업무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 불균형	기타
비율(%)	100.0	37.6	21.1	14.0	12.4	14.9

- (정신건강)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
-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5.6%, 이유는 비용부담 27.5%, 시간부족 20.0%, 심리적 거부감 18.9%, 정보부족 15.6% 順

구분(%)	합계	전문가 상담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비용부담	시간부족	심리적 거부감	정보부족	기타
전체	100.0	27.5	20.0	18.9	15.6	18.0
1인가구	100.0	29.9	11.6	21.1	21.1	16.3

- 약물 사용경험에 있어 수면제는 3.8%, 신경안정제는 4.3%, 각성제는 1.0%가 사용경험, 여성이 남성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사용경험 ↑

구분(%)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평생	지난1년간	평생	지난1년간	평생	지난1년간
전체		3.8	59.7	4.3	67.9	1.0	59.4
성별	남자	2.9	56.6	2.7	64.1	0.9	60.4
	여자	4.8	61.9	6.1	69.8	1.0	58.4
지역별	수도권	4.5	64.5	5.3	71.7	1.1	64.9
	비수도권	3.1	51.9	3.3	60.9	0.9	52.3

- 약물 사용 경험자 중, 약물 오·남용 경험\*은 12.1%가 있다고 응답
- \*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

- (건강인식) 평소 본인에 대한 주관적 건강인식은 54.5%가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남자(58.7%)가 여자(49.9%)보다 높음
- (미충족의료) 최근 1년간 건강상 이유(정신건강 제외)로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4.5%(남 3.2%, 여 5.9%)

구분(%)	합계	병의원 진료받지 못한 이유				
		비용부담	시간부족	정보부족	인근병원부족	기타
전체	100.0	23.7	58.1	7.6	4.5	6.1
1인가구	100.0	35.6	50.8	5.3	3.5	4.9

## 4. 교육 · 훈련

□ (고등학교) 졸업한 고교 유형은 일반고 82.7%, 특성화고 7.5%, 자율고 4.3% 順

구분	합계	일반고	자율고	과학영재	외국어국제	예술·체육	마이스터	특성화	기타
비율(%)	100.0	82.7	4.3	0.4	1.5	1.1	0.9	7.5	1.7

□ (대학교) 대학생(졸업포함)의 전공 계열은 공학 18.2%, 보건·복지 14.8%, 예술·인문 14.6%, 경영·행정·법학 14.4%, 정보·통신 8.6% 順

구분(%)	합계	교육	예술·인문	사회과·학·언론	경영·행·정·법학	자연과·학·수학	정보·통신	공학	농림·수·의학	보건·복지	서비스	
전체	100.0	7.4	14.6	7.5	14.4	6.3	8.6	18.2	0.8	14.8	7.5	
성별	남자	100.0	4.2	9.6	6.4	15.0	6.3	12.6	29.0	1.1	8.8	7.0
	여자	100.0	10.7	19.9	8.6	13.7	6.3	4.4	6.8	0.6	21.1	8.0

□ (취업준비)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은 학교 48.2%, 친구·선후배 43.6%, 부모·친인척 38.9%, 사설기관 33.5%, 온라인·유튜브 32.7% 順

○ 도움정도는 친구·선후배(58.6%), 부모·친인척(51.1%)이 높고, 공공기관 29.5%

구분(%)	학교	공공기관	사설기관	부모·친인척	친구·선후배	온라인·유튜브
경험	48.2	21.0	33.5	38.9	43.6	32.7
도움정도(약간+매우도움)	49.5	29.5	51.1	54.9	58.6	50.6

○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의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은 32.4%가 있음

□ (자기계발비) 한달 평균 자기계발비는 21만원(중위값 15만원)

□ (교육·훈련수요) 고졸 이하자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은 직업훈련 36.3%, 창업교육 16.6%, 어학 7.4% 順으로 나타남

구분(%)	합계	직업훈련	창업교육	어학	교양	기타	원치않음
전체	100.0	36.3	16.6	7.4	2.0	0.8	36.9
성별	남자	100.0	39.4	14.2	6.5	2.0	37.2
	여자	100.0	31.4	20.4	8.7	2.1	36.5

## 5. 노동

- (경제활동) 조사대상 청년 중, 취업자 비율은 67.4%
  - 주된 일자리의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52만원
- (복수일자리) 취업자 중 복수일 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3.9%이며, 3.9% 중 2개라는 응답은 89.9%,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은 10.1%
- (근로형태) 근로자 중 전일제는 78.0%로 남자(81.7%)가 여자(74.0%)보다 많으며, 시간제는 22.0%로 나타남

구분(%)		합계	시간제	전일제
전체		100.0	22.0	78.0
성별	남자	100.0	18.3	81.7
	여자	100.0	26.0	74.0
지역별	수도권	100.0	23.8	76.2
	비수도권	100.0	19.8	80.2

- (자영업) 취업한 청년 중 7.5%가 자영업자
- (계약기간) 고용 계약기간은 정규직이 68.7%, 1년 미만인 14.8%

구분(%)		합계	1달미만	1달~1년미만	1년이상	정하지 않음
전체		100.0	1.7	13.1	16.5	68.7
성별	남자	100.0	2.1	12.5	15.9	69.6
	여자	100.0	1.2	13.8	17.2	67.8
지역별	수도권	100.0	2.1	13.4	17.7	66.8
	비수도권	100.0	1.1	12.8	15.1	71.0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84.3%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70.6%가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나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15.0%, 미대상 14.5%
- (재직기간)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 35.6%, 1년 미만 32.7%, 1년~3년미만 31.7%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

□ (업무자율성) 현 직장에서의 업무자율성은 일하는 순서 외 대부분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높음

구분(%)	합계	회사가 결정	정해진 범위 내 선택가능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일하는 시간	100.0	54.6	28.4	9.5	7.4
일하는 장소	100.0	67.0	20.9	5.9	6.3
일의 양	100.0	46.7	33.4	11.7	8.2
일하는 순서	100.0	31.0	36.5	18.3	14.2
일의 내용	100.0	43.2	33.4	13.5	9.9

□ (구직경험) 미취업자의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은 13.2%가 있었음

○ 미취업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4.8개월

구분	합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1~2년미만	2년이상
비율(%)	100.0	0.1	98.1	1.8	0.0

○ 비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준비가 47.1%,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2.0%로 나타남

구분	합계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기능·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위해 준비중	어린아이 돌봄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비율(%)	100.0	22.0	4.6	6.9	47.1	4.9	8.3	6.2

□ (이직·구직요인) 이직 또는 구직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 48.5%, 고용안정성 12.8%, 장기적 진로설계 8.4% 順

구분	합계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	휴일 (주5일)	회사전망	장기적 진로설계	복지수준	정규직	기타
비율(%)	100.0	48.5	7.2	12.8	3.3	4.2	8.4	4.0	4.5	7.1

□ (근로환경)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에 있어 과중한 업무 19.1%, 성과 스트레스 11.1%, 감정노동 스트레스 24.9%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의 경험

구분(%)	합계	매일	일주일에 몇번	한달에 한두번	몇 달에 한번	전혀 없음
과중한 업무	100.0	6.2	12.9	17.0	15.5	48.4
혼자 일하는 괴로움	100.0	2.6	4.1	5.8	8.9	78.5
과도한 중량	100.0	2.4	4.0	5.8	8.8	79.1
성과 스트레스	100.0	4.5	6.6	12.4	14.6	61.9
감정 스트레스	100.0	12.4	12.5	12.7	8.5	53.9
안전장비 미비	100.0	2.0	1.9	3.5	6.4	86.2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절차는 30.6%만 있다고 응답

구분	합계	있다	만드는 중 또는 예정	없다	모르겠다
비율(%)	100.0	30.6	1.3	16.8	51.2

## 6. 관계 · 참여

□ (도움집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는 가족, 지인, 공공기관 順

○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는 가족, 공공기관, 지인 順(스트레스 外)

구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복수응답)				
	가족(친척)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없음
큰 돈 필요	92.8	33.5	10.7	2.0	3.3
생활비 부족	93.4	33.3	5.1	1.0	2.3
본인·가족이 아플때	94.8	41.1	6.6	2.1	1.2
우울 또는 스트레스	76.5	66.0	6.1	4.0	2.2
차별·고충·갈등	77.4	53.3	23.5	5.0	3.4

구분(%)	합계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가족(친척)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없음
큰 돈 필요	100.0	68.8	8.5	18.7	1.5	2.4
생활비 부족	100.0	72.8	10.4	13.7	0.9	2.2
본인·가족이 아플때	100.0	73.6	10.8	12.7	1.4	1.5
우울 또는 스트레스	100.0	46.0	39.2	9.2	2.8	2.7
차별·고충·갈등	100.0	46.1	20.5	28.0	2.5	2.9

□ (정치) 정치에 대한 관심은 37.5%가 관심 있다고 응답

구분(%)		합계	매우 관심	약간 관심	그다지 없음	전혀 없음
전체		100.0	4.8	32.7	40.0	22.5
성별	남자	100.0	6.4	34.2	38.8	20.7
	여자	100.0	3.0	31.1	41.4	24.4

□ (여가) 활동경험의 필요 여부에 대한 생각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문화예술 활동 24.3%, 스포츠 30.5%, 2~3일 여행 44.0%, 동호회 15.0%

구분(%)	합계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할 필요없다
문화예술 활동	100.0	24.3	67.2	8.5
스포츠 활동	100.0	30.5	63.3	6.2
2~3일 정도의 여행	100.0	44.0	53.2	2.8
단체·동호회 활동	100.0	15.0	65.4	19.6

□ (은둔형 청년)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 비율은 2.4%(임신·출산·장애 제외)

구분(%)	합계	매일외출	주3~4일	자주외출	가끔외출	취미만 위해외출	인근 편의점	방에서만 나옴	방도거의 안나옴
전체	100.0	71.1	9.1	6.3	11.0	1.3	1.0	0.1	0.0
성별	남자	100.0	74.3	8.5	5.4	9.3	1.4	1.0	0.1
	여자	100.0	67.5	9.8	7.3	13.0	1.1	1.1	0.1

○ 은둔생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0%로 가장 높고, 인간관계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順

구분(%)	합계	학업중단	진학실패	취업어려움	인간관계어려움	기타	
전체	100.0	7.9	1.5	35.0	10.0	45.6	
성별	남자	100.0	11.4	1.0	34.6	11.0	42.2
	여자	100.0	3.7	2.1	35.6	8.8	49.8

## 7. 사회인식 · 미래설계

- (삶인식)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를 조사했을 때(0~10점), 만족도는 6.7점,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2점
- (갈등인식) 세대간 갈등은 76.5%, 소득차이 갈등은 79.1%, 지역간 갈등은 63.4%, 성별 갈등은 72.3%, 국적간 갈등은 53.0%가 많다고 응답

구분(%)	합계	매우 많다	많은 편	없는 편	거의 없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100.0	15.2	61.3	20.9	2.6
부유층과 서민층	100.0	25.6	53.5	18.4	2.4
수도권과 비수도권	100.0	15.6	47.8	32.5	4.1
남성과 여성	100.0	24.6	47.7	24.8	2.9
내국인과 외국인	100.0	9.2	43.8	40.9	6.1

- (미래영향요소)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있어 불평등은 90.1%, 저출생·고령화는 95.7%, 기술·산업구조 변화는 90.1%, 테러리즘은 81.9%, 기후변화는 92.4%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구분(%)	합계	전혀 영향 無	영향 無	영향 有	매우 영향 有
불평등	100.0	1.0	8.9	64.4	25.7
저출생·고령화	100.0	0.5	3.9	40.1	55.6
기술·산업구조 변화	100.0	0.8	9.1	58.6	31.5
테러리즘(국제분쟁·통일)	100.0	2.0	16.0	56.1	25.8
기후변화	100.0	1.0	6.6	44.1	48.3

- (소득계층인식) 본인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중간층 56.5%, 중하층 26.5%, 중상층 11.6%, 하층 4.7%, 상층 0.7% 순으로 나타남
- (결혼) 미혼청년 대상 향후 결혼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함, 남자와 여자는 10.1%p 차이(남자 79.8%, 여자 69.7%)가 나타남
- (출산) 향후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함, 남자와 여자는 15.2%p 차이(남 70.5%, 여 55.3%)가 나타남

## 8. 경제

※ 생활비, 소득은 2021.1.1.~2-21.12.31기준, 부채 및 재산은 2021.12.31. 기준 자료임

- (생활비) 청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이며, 식료품비 96만원, 연금·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교육비 24만원 順

구분(만원)		총 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월세)	교통비	교육비	통신비	오락·문화	연금·보험	세금
전체	전국	303	96	8	27	24	17	15	32	23
	수도권	314	101	9	25	26	17	16	33	24
	비수도권	291	89	8	28	22	17	14	31	22
1인가구	전국	161	48	22	12	9	8	11	13	8
	수도권	168	51	23	11	8	8	12	13	9
	비수도권	153	45	20	12	9	8	9	12	8

- (소득) 청년가구의 평균 소득은 6,443만원, 개인 기준은 2,162만원

구분(만원)		가구기준 평균 소득	청년 개인기준 평균 소득
전체		6,443	2,162
성별	남자	-	2,309
	여자	-	2,000

- (부채) 청년가구의 평균 부채는 5,080만원, 개인 기준은 1,172만원

구분(만원)		가구기준 평균 부채	청년 개인기준 평균 부채
전체		5,080	1,172
성별	남자	-	1,478
	여자	-	832

- (재산) 청년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6,444만원, 부동산 등 9,230만원, 주식 995만원, 가상자산 68만원

구분(만원)		금융		주식		가상자산		기타부동산 및 재산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전체		6,444	1,415	995	259	68	25	9,230	760
성별	남자	-	1,425	-	322	-	36	-	863
	여자	-	1,405	-	189	-	11	-	647